



MY SPANKING FRIENDS

EINGYEO
JULY
2020

Spanking Manga
& Illustrations
& Game
By Eingyeo
G
ももぱん

Vol.21

NSFW R+18

Copyright©2020 by Eingyeo.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All the characters in the contents of Eingyeo
is more than 18 years of age. They are
professionally
hired legally mature actors
and the age appearance is
due to the setting in the contents,
the support of computer
graphic, and SFX make-ups.



スパンキング



25枚

お尻を叩くプレイ。本来は体罰である。

マンガ

イラスト



Cheating on over the knee
(F/f)



白衣の天使
(F/M)



薬 Ad
(F/f)



Spanking punishment of noble girl
(M/f)



アイドル♡お仕置き会
(M/f)



A clockwork peach
1話 新しい子 (F/F)





엉덩이가
얼얼해

흐흐
고작 손바닥으로
몇 대 얹어맞은
것 가지고
호들갑은.

야.
이거 엄청 아프거든?
저 쌤 장난아니야

킥킥...멍청한 녀석

이런건 다
방법이
있다구

지켜보기나 해.

무슨 자신감이야
저건...

오하영.
다음은 네 차례야.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이리 엎드려.

네, 네.



어휴
넌 대체
몇 겹을
꺼입은거니?

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작년에도 이런 수법은
몇번이고 있었단다.

너희들은 어쩜
생각하는 것도 똑같니?



백의의 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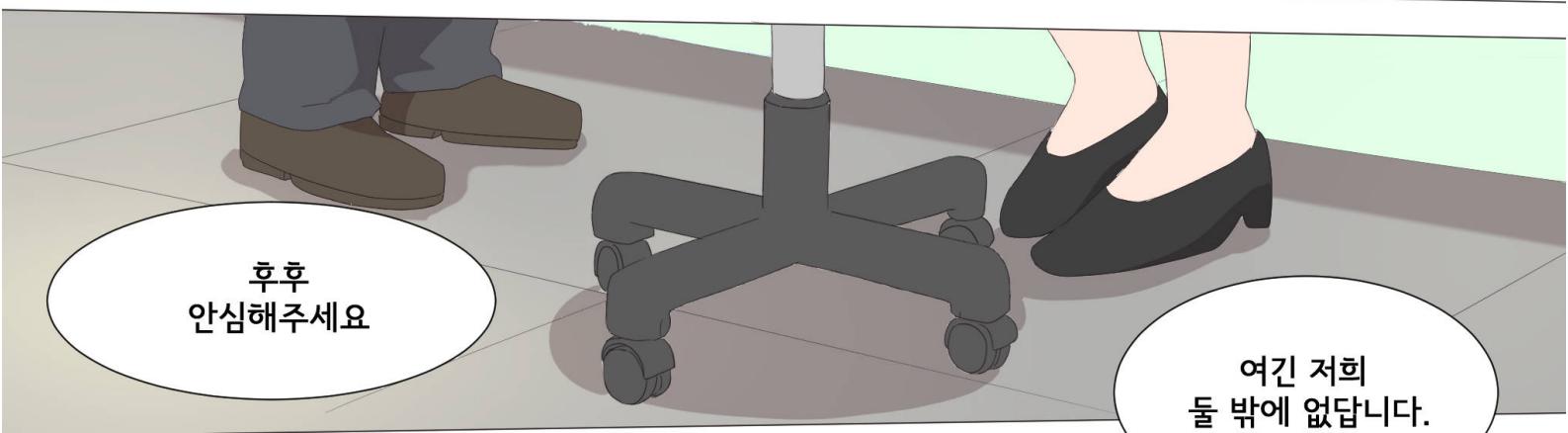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간호사,

치료실

환자분, 그럼 이쪽으로







‘다이애나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은 그 자체로 감정의 배출구인 동시에

눈물은 화학적으로도 다양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클리닉의 이러한 요법은,
조금 이상해 보여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물리적 충격을 통해 눈물을 유도하여,

마음속 깊이 얹눌렸던 환자의 감정을
한바탕 눈물로 흘려보내도록 돋는 것입니다.





희고 가는
손과 팔



미소를 잃지 않는
표정



그리고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다정한 말까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도 같습니다.



아프다면 마음껏 울어주세요.
제 무릎 위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어떤 모습을 보이셔도 괜찮답니다.

그렇게 간호사님의
무릎 위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는 것으로

그래요,
울어도
괜찮아요

흐
흐
흐

많이
힘드셨지요?

치료는
끝이 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울 시기.

그러나 그만큼
학교,
학원 혹은 가정에서
한창 매를 맞을 시기

누구보다 예민할
소녀들에게
아픈 회초리보다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

박사님!

매를 맞다 다칠까 걱정이라고요?
매 자국을 누가 볼까 걱정이라고요?

이젠 걱정은 그만!

체벌 시간이 두려운 소녀들을 위한 제품
‘쿨 크림’을 소개합니다.

쿨-크림?!



마침내!

체벌 전, 후 바르면
어떤 상처나 멍도
금방 해결!

천연소재로
보습효과까지!



<생생한 체험 후기>

와! 정말이다!
사실 집에서도 맞아야 되서
피멍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이젠 안심이에요!



내일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젠 남자친구에게 학교에서 매 맞은걸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쿨-크림!
지금 주문하세요!



주의: 본 제품은
체벌 후 상처 회복을
위한 제품으로 체벌시의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여, 저분은
대감집 따님아녀?

여봐라!
어서 장
20대를 쳐라!

귀하신 분이
어쩌다가...

아씨...
어서 형틀에 몸을...

이것 놓아라!
어디 천한 손을
올려놓는 것이냐!
내 발로 직접
걸어오를 것이다!

시끄럽다!
내가 어디 상것들과
같을 줄 아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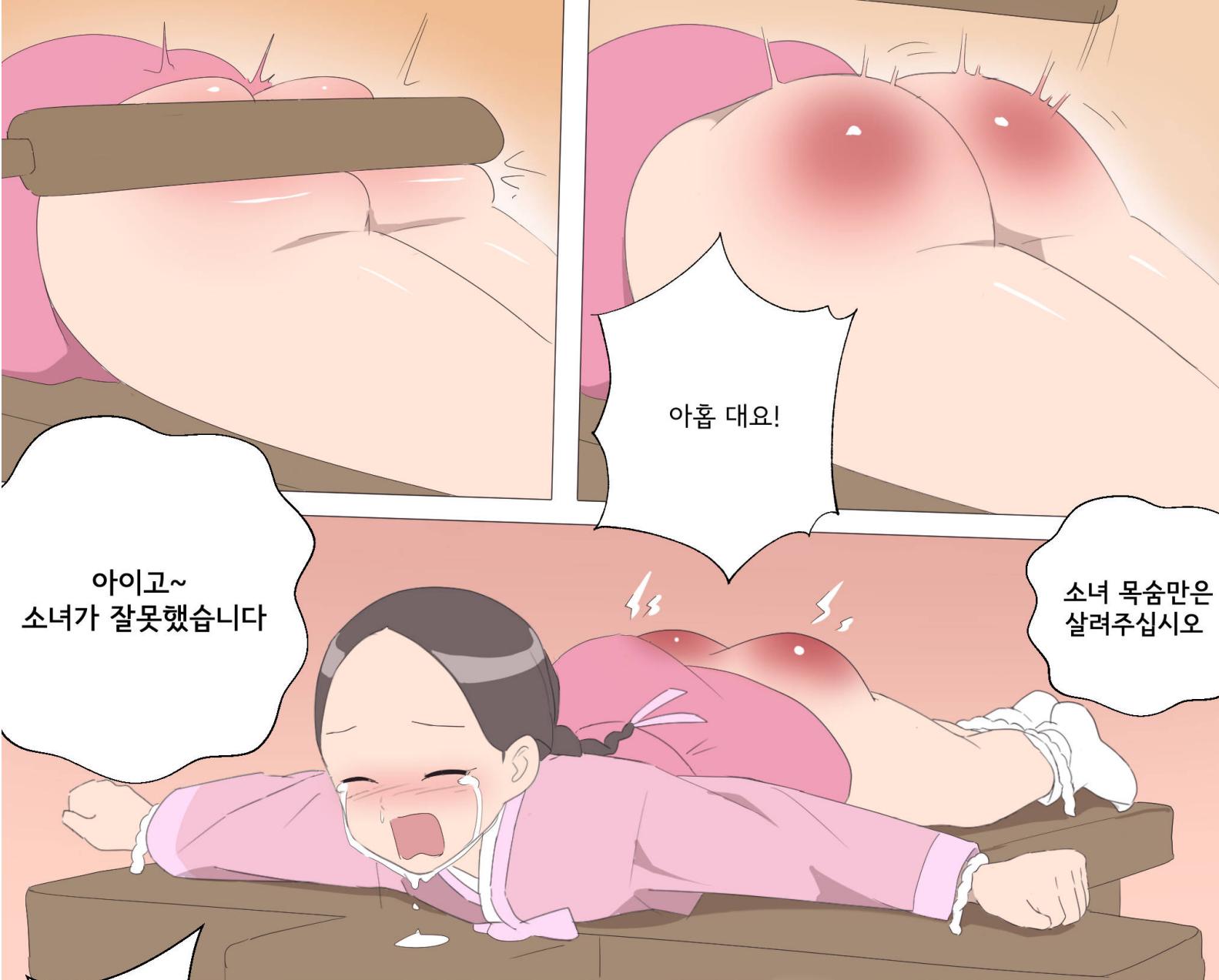
아씨요
곧 울고불고 흉한 꼴
다 보일건디
벌써부터
그러십니까

너,
너희들은 어딜 보는 게야!
어서 썩 눈을 떼지 못할까!

야
희고 곱다

예, 아무렴요.
그럼 갈테니까
아씨 잘 참아보십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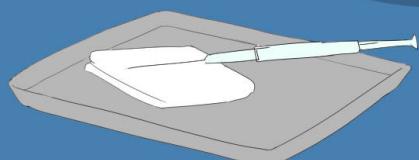
그래...어디 한 번 쳐 봐라!
내 절대 저 천한 것들처럼
흉한 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침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이게
무슨짓이니!
엄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알 수 없는 주사를
맞는 것으로

착하지, 착하지

이곳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이곳의 설립 이유는 재사회화.
사회를 어지럽히는 잘못 자란 성인들을
다시 아이 때부터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수용자를 보살피는
이곳의 간수들은
보육자와 같은
복장을 하고,

RESET!

어떤 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친구를 때리면
안 되요!

보험사기범

폭행전과15범

착한아이,
착한아이

주사를 맞고 아이가 된
이들은 배변교육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엄마 역할을 하는
간수들은 평소에는
무척 친절하지만,

제발
엄마 말 좀
들으렴~

규칙을 어기면
즉시 엄하게 주의를 줍니다.

정말이지,
나쁜 아이는
벌 있어요!

그러면
못써요!

엄마
무서워요

그렇지?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 거란다.

옳지,
다됐다

쟤는 몇 살이래?

스물 셋이었나?
저랑
동갑이라는데요

スパンキング



46枚

お尻を叩くプレイ。本来は体罰である。

[マンガ](#)[イラス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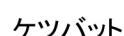
Eingyeoのpatronなら「スパンキング」の全作品がすぐ見られる！

[BECOME A PATRON](#)

もうEingyeoのPixiv FANBOXでも、人気アーティストたちの作品を。

[支援する](#)

Game - メイドのお尻は叩かれるためにあるのです
CV: 真宮みま 加川らん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요시카와히메노
미요시미유키
혼다사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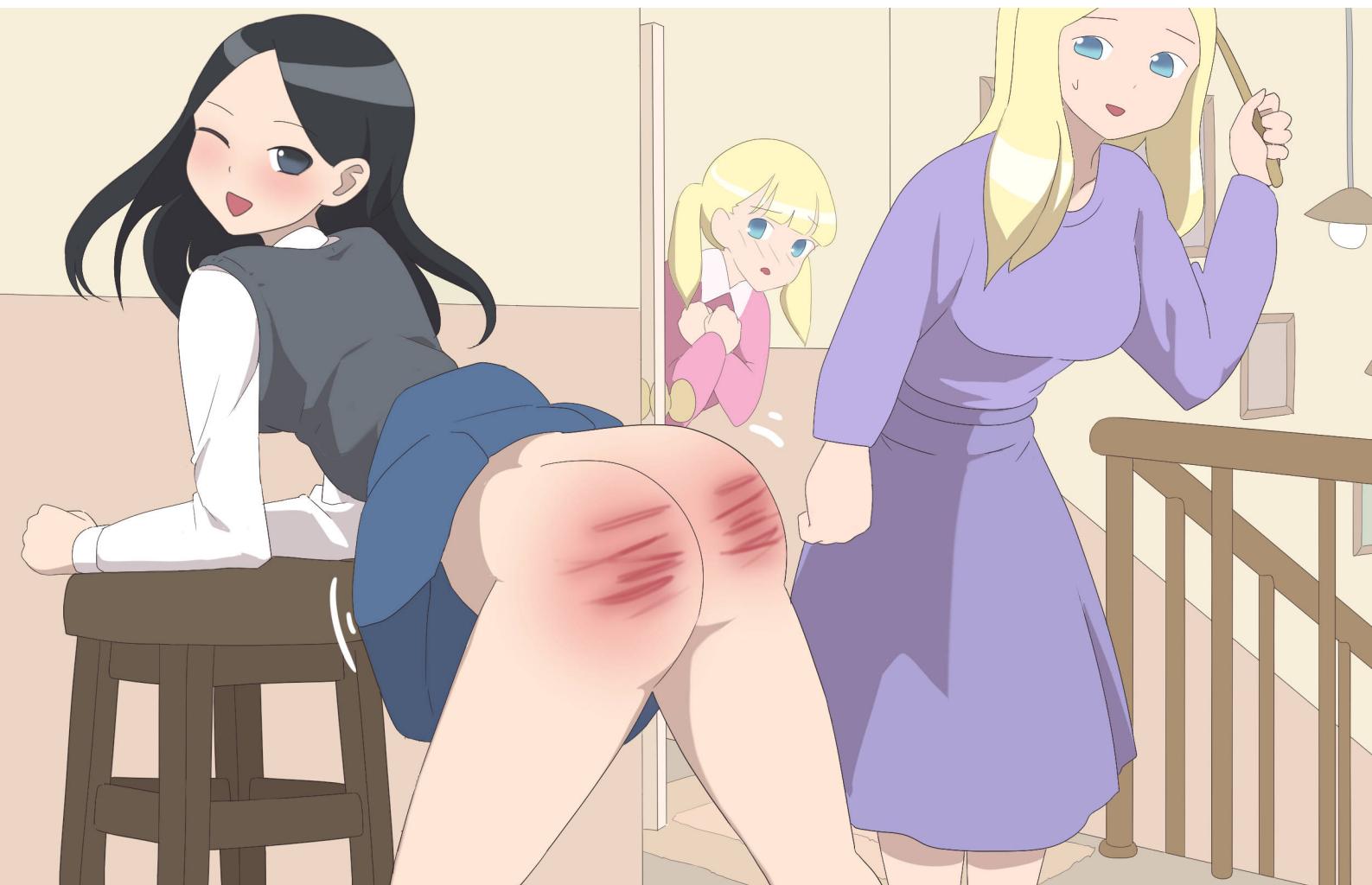




요시카와양,
또다시 준비물을 잊었나요?
이렇게 얹어맞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요?

여, 여섯 번째요
죄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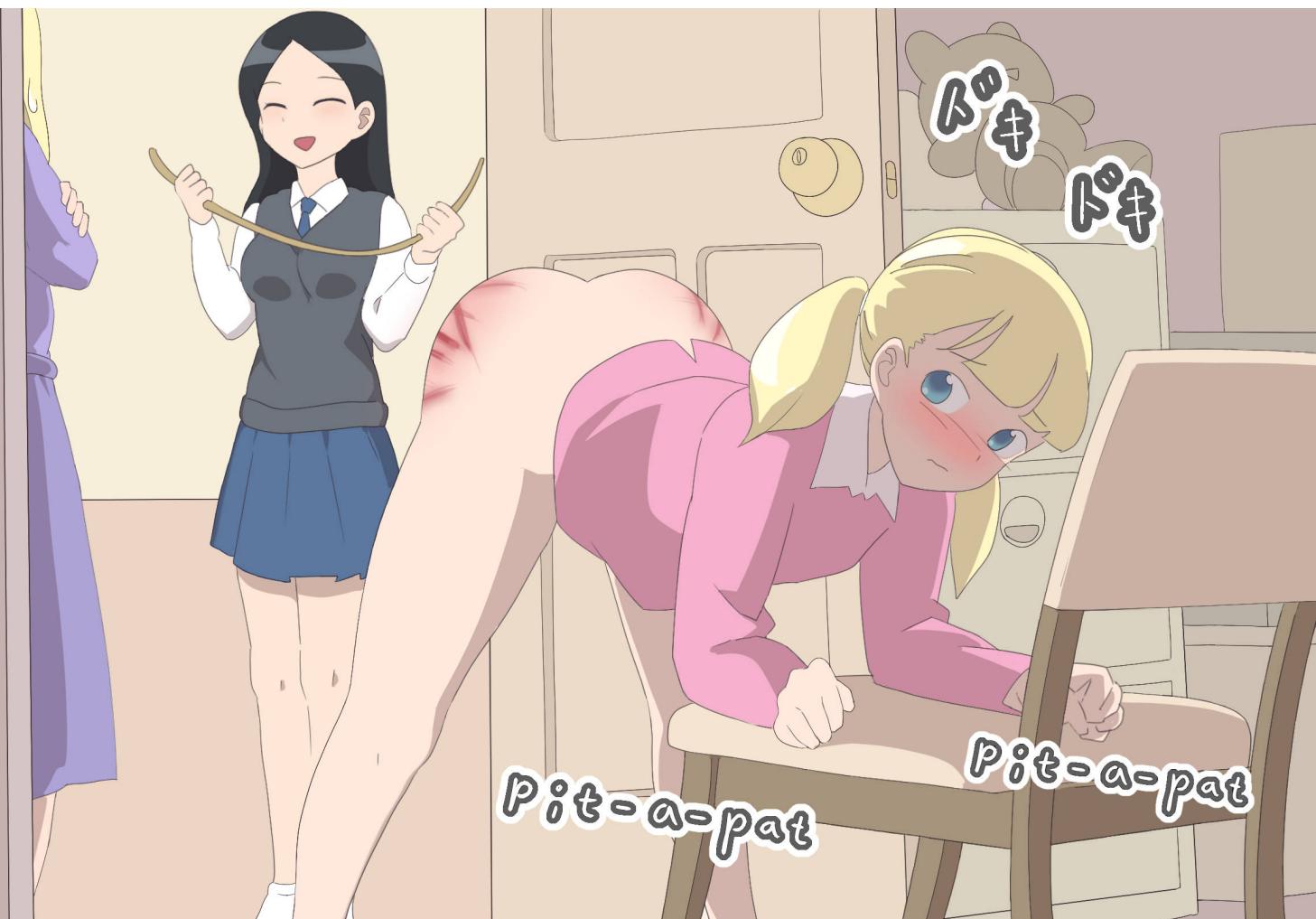




그럼 앞으로 베이비시터를 해
주는 대가로 정말 이거면 되니?
돈 대신?

네 그럼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회초리로 엉덩이 100대를
맞는 것 말예요.
그러니까 계속 때려주세요!

그래 알겠어. 네가 좋다면야,
앞으로는 베이비시터가 되어준
보답으로 엉덩이를 때려줄게!



Pit-a-pat

Pit-a-pat



정말? 우리 딸이
부탁한 거라고?

네 그럼요! 같이 놀고
있던 것이랍니다!
그 어떤 놀이보다
좋아하던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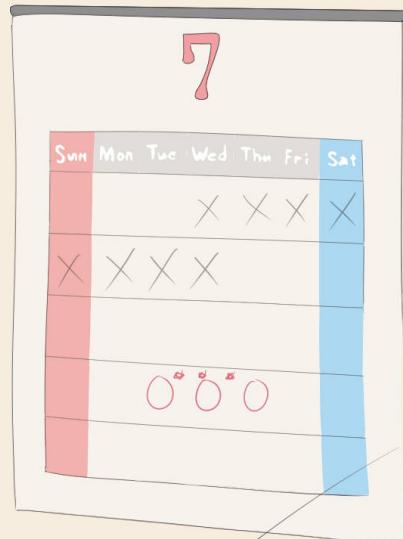
엄마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Pitat-a-pat

Pitat-a-pat



시험기간 아영이와
다은이는 잠을 쫓아내기
위해 서로의 종아리를
때려주었습니다.



어때?
잠이 좀 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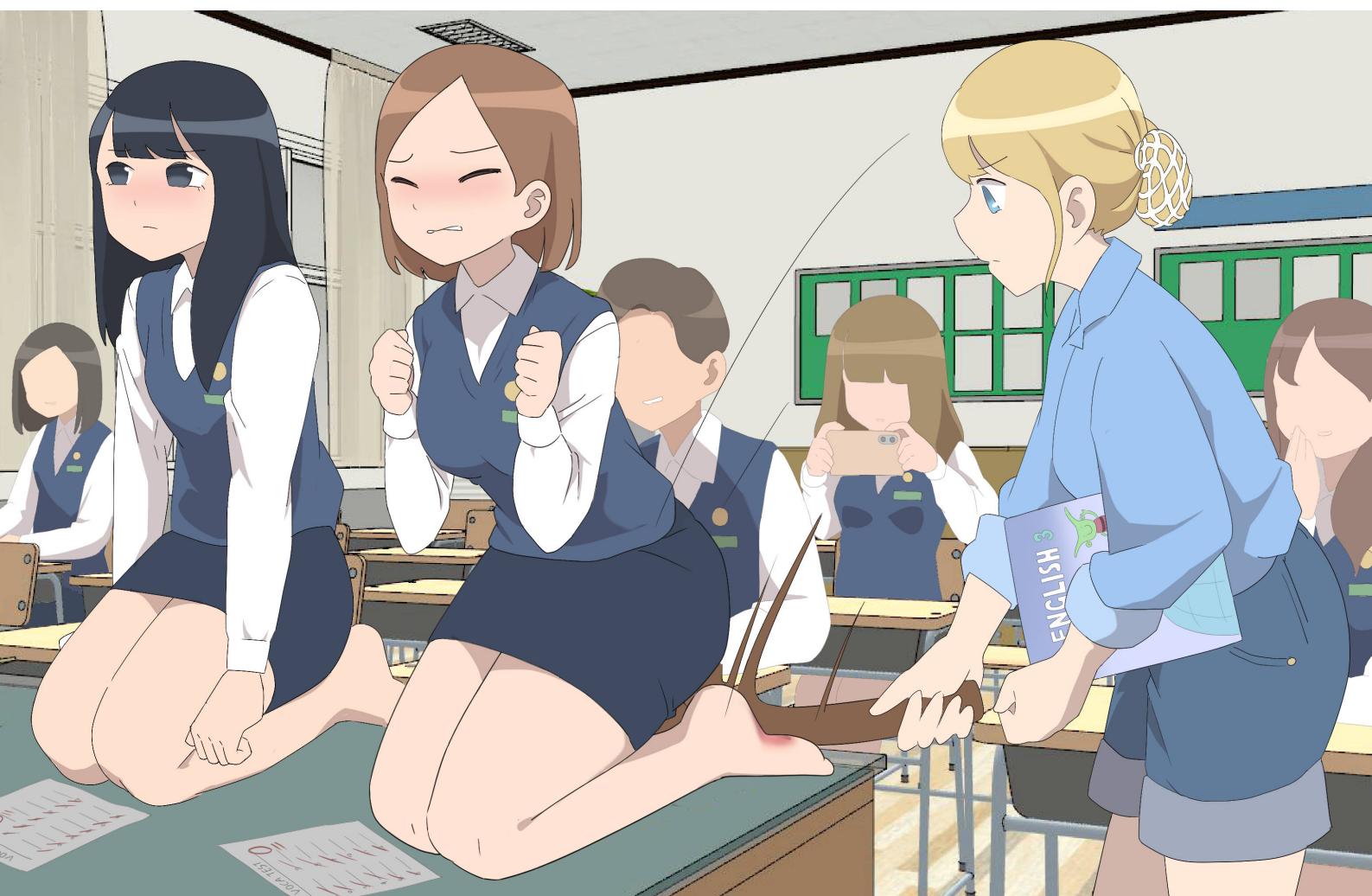
으응,
고마워





요 말썽쟁이녀석,
그동안 엄마 속을
그렇게 속였다고?

여기 맡겨진 방학동안
이모가 그 버릇,
단단히 고쳐줄게!
각오는 되었겠지?





징계위원회

위원장 3-4 김지원
별점 누적 30점 3-4 서민주





징계위원회

위원장 3-4 김지원
별점 누적 30점 3-4 서민주







ㅋㅋ 악

움찔





...
이게 지금 뭐하는거지?

선생님이 벌받는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했을텐데?

그치만...
그치만
너무 아파서

선배 언니라면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체벌이 아픈게 당연하지.
네가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참고 맞아야 할 거 아냐?

정말이지.
뒤에서 후배가
보고있단다.

두 손 땅바닥에
붙이렴.
손이 바닥에서
떨어지면 엉덩이를
100대 때려줄거야.

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엉덩이에 매를 맞고 울어버린다니,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것 같아 ㅋㅋ

뭐해 네 남친 울잖아~
어서 안아줘야지~ㅋㅋ

















